

Testing the Acceptance and Diffusion Model of Internet Rumor

- Focusing on Helping Motivation for Nuclear Risk Information -

Yeon Jae Ryu^{1#}, Seo Yong Kim²⁺

¹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Korea

²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a process in which nuclear risk information as a rumor is accepted in the internet and spread to internet users. We assumed that (1) the distrust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the reliability of internet information influence the degree of rumor acceptance, (2) the rumor acceptance affects change of attitude, (3) change of attitude increases the intention of information spread, and (4) the influence on information spread intention is moderated by helping motivation levels (i.e. helping development policies, helping others). Our results confirmed all the assumed propositions are true, which significantly highlight the process of rumor spread. In particular, the motivation of helping development policies should moderate the effect of distrust of government information on information spread intention, and spread intention was moderated by helping motivation among people who trust internet information and change their attitude.

Key words: nuclear power energy, rumor, diffusion and acceptance of rumor

1. 서론

인터넷에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많은 소문, 가십, 루머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십이나 루머들은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 최근 들어 인터넷 상의 루머의 파괴력을 강조하는 ‘루머폭탄(rumor bomb)’이란 용어(Harsin, 2006)가 출현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 루머에 대하여 사람들은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루머와 관련된 많은 연구

들이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루머가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만들었다고 하기 보다는 사회적 불안과 불신이 루머를 만들어 낸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 루머는 특정 개인에 초점을 두는 가십(gossip)과 달리 인간 삶 전반에 걸쳐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Ambrosini, 1983),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발생한다(Kim, 1986). 루머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민감한 주제나 사건들이 잠재적 위험이나 위협을 가지고 있고, 증거나 사실들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해서 대중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 The 1st author: Yeon Jae Ryu, Tel. +82-31-219-2868, Fax. +82-31-219-2195, e-mail. psy1973@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Seo Yong Kim, Tel. +82-31-219-2742, e-mail. seoyongkim@ajou.ac.kr

고 지각할 때 많이 발생한다(DiFonzo & Bordia, 2007; Shibutani, 1966). 이런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불확실한 또는 애매한 상황에서 공식 정보가 없거나 공식정보를 신뢰할 수 없을 때(Crampton, *et. al.*, 1998; DiFonzo & Bordia, 2000; Festinger, 1950), 루머는 하나의 가설로 정의되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DiFonzo & Bordia, 2000). 루머는 일반 성원들이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이해하기 애매하고,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안전이 위협받는다 고 지각될 때 불특정 다수가 비전통적 통로를 통해 임시적으로 만들어낸 미입증 뉴스(Shibutani, 1966)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루머 생성의 본질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의 부재’이다. 하지만 많은 루머 관련 연구들은 루머의 부정적 측면이나 루머의 비신뢰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왔다. 루머는 부정적 결과와 영향을 최소화 하고, 루머 생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루머 생성의 본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루머 생성에 영향을 주는 공식정보의 비신뢰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식 정보의 비신뢰가 루머 수용과 전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루머의 사회적 측면으로 인해 루머 전파의 동기도 자기적, 이기적이 아닌 사회적, 이타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일차적으로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루머나 가십들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전파되기 보다는 개인의 고양(self-serving), 오락적, 자기이득적 동기와 같은 개인적 동기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중성과 사회성을 가지는 루머들은 개인적 동기뿐만 아니라 이타성, 중요문제의 쟁점화, 사회적 자원의 창출과 같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정사건과 관련해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도 타인들의 불이익이나 불행을 막거나 감소시키

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특정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사회적인 아젠다를 형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보’를 배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인 존재이기에 타인을 돕기 위한 동기로서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asko & Faraj(2000)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돕는 즐거움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려는 동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 대중들이 루머를 전파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가 루머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타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루머를 위험과 관련된 정보 특히나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정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타성이나 이타적 즐거움에 의해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루머 전파의 긍정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루머를 나쁜 루머로만 정의하고, 나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동기 또한 부정적일 것이라는 편견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루머를 수용하거나 전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루머는 나쁜 루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확인된)정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긍정적 차원의 루머 전파 동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유지되어온 원자력과 관련된 부정정보들이 인터넷 상에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수용되고, 전파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루머 생성의 중요 요소인 공식정보에 대한 불신과 이타적 전파동기로서 도움 동기가 루머로서 원자력 관련 위험정보 수용과 전파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원자력에 대한 비공식적 위험정보들은 비검증적이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그 성격이 위험적이라는 측면에서 루머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1. 부정적 정보로서 루머

루머에 대한 정의 관련해 Allport & Postman(1947)은 '실재한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을 통해 퍼져서 그것을 신뢰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보았으며, Rosnow(1980)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슈'라고 정의하였다.

루머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진다. 첫째, 루머의 속성을 볼 때 루머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Allport & Postman, 1947),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다(DiFonzo & Bordia, 2000).

둘째, 루머의 발생상황을 볼 때 루머는 애매모호성, 불확실성, 불안함, 위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DiFonzo & Bordia(2006)는 루머가 상황적으로 모호함, 위협,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생성된다고 보았으며, Shibutani(1966)는 애매모호함을 루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보았다. 또한, Rosnow(1974)는 루머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해석을 하는 과정의 산물로 보았다. 즉, 루머는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애매모호한 상황,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루머가 사회적 불안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이 루머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루머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루머는 불안하고,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만들고, 위기를 관리하도록 해주는 유용한 수단(DiFonzo & Bordia, 2000)이다. 루머는 공식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모호함을 극복하려는 시도(Shibutani, 1966)이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정의 결과물(Rosnow, 1974)이다. 즉, 루머는 어떤 사회에서 발생한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위협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는 과정의 산물이며 그러한 위기나 불안을 관리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루머가 가지는 기능적 역할은 루머가 가지는 정보성에 기반한다. 루머는 정보성(informativeness)

을 가지며 떠돌아다니며(DiFonzo & Bordia, 2007), 불확실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로 사용된다. 루머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루머가 정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루머는 사회적이다. 루머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발생(DiFonzo & Bordia, 2007)하기 때문에 주제 관련성(topical relevance)이 높다(Rosnow & Kimmel, 2000). Rosnow(1980)는 루머를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제라고 보았으며, 주제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더 크게 확산된다(Rosnow, 1991). 이러한 측면에서 루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또는 사건들이 불확실성과 애매모호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또는 위협을 내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적 정보로서 불확실성과 애매모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루머와 유사한 개념인 가십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루머와 가십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루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발생측면에서 루머는 상황이 모호하거나 위협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면, 가십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다(DiFonzo & Bordia, 2006). 사실 입증 측면에서 보면 루머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가십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Rosnow & Georgoudi, 1985; Rosnow & Kimmel, 2000). 내용측면에서 루머는 비록 검증되지 않았지만 수단적으로 유용하지만 가십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DiFonzo & Bordia, 2007). 또한 루머는 시사성을 가져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가십은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Rosnow & Georgoudi, 1985; Rosnow & Kimmel, 2000). 즉, 가십은 개인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지만 루머는 인간 삶의 보다 넓은 영역을 다룬다(Ambrosini, 1983). 기능적 측면에서 루머는 모호성에 대한 인식 위협과 잠재적 위협을 관리하는 반면 가십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재미를 주고 서로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규범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DiFonzo, & Bordia, 2007). 즉, 루머는 가십에 비해 공적(public)이고 사회적이며,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루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슈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Cho & Jung, 201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루머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뜬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모호하고, 불안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감소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미확인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위험정보를 이상에서 논의한 루머의 개념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유지되어 온 루머 대상이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양한 루머들이 인터넷을 통해 생성되고 유지되어 왔다.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은 우리가 자주 목격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생소한 위험(Zimmerman, 1985), 위험의 크기를 쉽게 확인하기도 어렵고, 재해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어려워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Kim, *et. al.*, 2007). 일반인들에게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들은 다른 위험 요소들에 비해 훨씬 공포스럽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Cha, 2000; Slovic; 1987).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불안감이 증폭되었다(Wang & Kim, 2013). 한국인들의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높은(Cha, 2012) 반면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Park & Kim, 2015; Park, 2012), 의외로 공식경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많지 않아 불확실성 수준이 높다.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들은 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으로써 원자력으로 다루고 있어, 그 성격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거나 부족하여 입증성이 낮아 루머적 성격이 많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원자력 위험과 관련된 많은 부정적 정보들은 그 출처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 즉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과 SNS에서 떠도는 일본 방사능 관련한 중요 소문 13개 중 2개는 사실이고, 3개는 사실결과가 혼용되어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며, 7개는 사실이 아니었다(Chosun Ilbo, 2013.07.31.). 연구자들이 6개의 원자력 관련 루머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루머에 따라 적게는 15.7%, 많게는 64.1%가 맞다(확실히 맞다+약간 맞다)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한국 인터넷에 존재하는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 정보들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며, 입증이 어려워 루머적 요소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원자력 관련 위험 정보 중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며, 검증되지 않은 위험 정보들을 루머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2. 루머 발생과 전파의 동기와 상황

DiFonzo & Bordia(2007)는 루머를 발생단계, 평가단계, 확산단계로 구분하였다. 발생단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루머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이다. 평가단계는 루머를 접한 사람이 해당 루머의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루머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마지막 확산단계는 사회 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루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루머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루머를 확산시키는데 있어 개인들이 가진 동기, 신뢰, 상황적 요인이었다.

루머는 발생동기와 관련해 Rowan(1979)은 루머의 유형을 자연발생형과 의도형으로 구분하고 전자에서 동기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의도형은 루머 생산자가 존재하고, 생산자가 자신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계산된 상태에 따라 유포하는 반면, 자연발생형 루머는 진위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규격화된 상태에서 시작되어 차츰 일정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Kim, 1997). 의도적 루

머는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자기고양적 또는 관계고양적 동기와 같은 개인적 동기에 기반되는 경우가 많다.

루머전파 단계에서도 동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DiFonzo & Bordia(2007)는 루머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동기를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사실확인 동기(fact-finding motivation)이다. 사실확인 동기는 루머의 불확실성과 통제력 상실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루머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루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은 통제력 상실과 불안감을 가지고 온다. 사실확인 동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통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타난다. 특정 상황이 가진 불확실성과 중요성 그리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이때, 공식 경로를 통한 검증된 정보가 없을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해석한 것이 루머가 되고,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계고양(relationship-enhancement)이다. 특정 상대에게 자신의 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동기화가 된다는 것이다. 속해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지위와 명성을 유지하고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Brock, 1968; Fromkin, 1972; Lynn, 1991). 세 번째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동기이다. 자기고양 동기는 자신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욕망과 관련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높은 자존감(self-esteem)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루머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명분에 맞으면 루머의 질이나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을 믿어버리거나 믿지 않더라도 무책임하게 전파하기 쉽다(Sunstein, 2009).

DiFonzo & Bordia(2006)에 의해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이타성이다. 이타성은 그동안 루머 전파의 중요 동기로써 다루어 오지 않

았지만 온라인 구전, 온라인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Huber, 1991),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즐거움을 준다(Krebs, 1975). Wasko & Faraj(2005)는 이타적 즐거움(enjoyment in helping)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 동기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는 행동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았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욕구에 의한 이타주의에 의해 동기화될 수 있고(Davenport & Prusak, 1998),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자체에서 내재적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그 만족감으로 정보를 공유한다(Ba, *et. al.*, 2001).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 자체가 기분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한다(Kollock, 1999). Kankanhalli, *et. al.*(2005) 연구에서도 온라인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내재적 편익으로 자기효능감과 타인을 돕는 즐거움이 포함되었다. Matthew(2006)은 웹기반의 게시판에서 정보공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 내적 동기인 이타적 즐거움이 중요 동기로 작용함을 증명하였다.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완전한 이타적 동기 또는 이타적 즐거움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타인들을 돕기 위한 이타적 동기에 의해 정보를 '구전'하기도 한다(Kim & Grunig, 2011). 루머 수용자들에게 루머는 '루머'로서 지각되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일종의 '정보'로 지각될 가능성이 높다. 루머 수용자들은 이런 정보를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이 속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전달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게다가, 루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위협정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일 수 있다. Richins(1984)에 의하면 제품이나 기

업과 관련된 부정적 구전은 불만족 경험에서 발생하며, 구전의 중요한 3가지 동기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피해나 불만족 경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상의 동기와 더불어 신뢰도 루머와 발생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변수이다. 루머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루머가 진실 또는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루머가 진실이라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고,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지 않는다(Rosnow, *et. al.*, 1986). 즉, 루머에 대한 신뢰가 루머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루머의 평가단계에서 사람들은 루머가 믿을 만한 것인가를 평가한다. 루머에 대한 신뢰는 사람들이 루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루머에 대한 신뢰 또는 믿음은 해당 정보를 전파하는데 영향을 준다(DiFonzo & Bordia, 2007). 같은 내용의 루머일지라도 신뢰할만하거나 권위 있는 정보원에게 들은 루머는 더 믿기 쉽다(DiFonzo & Bordia, 2007). 루머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 때, 반복해서 루머를 듣게 될 때, 어떠한 반박도 없을 때 루머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Garrett, 2011). 루머수용자들은 이런 메시지에 의해 설득되어 그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루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루머에 의해 설득되고 그것을 사실이라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동기와 신뢰가 루머의 발생과 전파를 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루머 발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과 조건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요인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이다. 루머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위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DiFonzo & Bordia, 2007),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의 산물(Rosnow, 1974)이다. 또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루머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Shibutani, 1966). Allport & Postman(1947)의 루머 공식에 의하면 루머의 배포는 중요성(important) × 모

호성(ambiguaty)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번째는 공식정보 또는 관련정보의 부재이다.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불안감이 발생하였는데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고, 공식경로의 정보가 없으면(Festinger, 1950)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루머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상황의 불확실성과 애매모호성은 루머의 중요 요인인데,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경로의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루머가 발생하기 쉽다.

공식정보의 부재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세 번째 요인은 공식정보의 불신이다. 사람들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루머를 만들어내지만 공식정보를 불신하게 되면 비공식 정보인 루머를 통해 상황통제감을 보상받고 이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Shibutani, 1966). 루머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경로의 정보가 없을 때 발생하고(Festinger, 1950), 공식경로의 불신은 루머의 생성과 확산에 영향을 준다(Crampton, *et. al.*, 1998). 즉, 자연발생적 루머는 불확실성이 높고, 잠재적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개인이 상황을 정의할 충분한 정보가 없으며, 공식경로의 정보가 없거나 있어도 신뢰할 수 없을 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황에 대한 해석을 높이기 위해 비공식적인 정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Lee, 1977; Festinger, 1950). 루머는 어떤 문제 상황이 불명확할 때 퍼지기 쉽고(Allport & Postman, 1947), 공식경로의 정보원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비공식 뉴스로서 발생한다(DiFonzo & Bordia, 2000). 루머는 정보가 없을 때 상황을 설명해주는 상황과약 장치이며(Bernardi, *et. al.*, 2012), 전통적 뉴스(공식경로 뉴스)를 불신하면 비전통적 뉴스(비공식 경로 뉴스)를 이용한다(Guggenheim & Campbell, 2011). 일반적으로 이런 루머들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공중적인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Lee(1998)는 루머발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상황의 불안정과 사안의 중요성을 꼽으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루머가 발생하기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Han(1998)에 의하면 (1) 한국 정부가 안보 위협성

을 정국 운영의 도구로 사용하여 루머를 선동하였고, (2) 정치적 낙후성과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다. (3) 상의 하달적 의사소통방식과 공개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4) 정부 주도하의 경제가 다양한 경제 관련 스캔들을 만들어 낸 전력이 있고, (5) 전통적 미디어의 낮은 질적 성장과 선정주의(sensationalism) 보도가 루머의 양산과 가속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통적 미디어가 루머를 차단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양산하고 증폭시켜 왔고, 정치적 낙후성과 사회적 불확실성이 사회적 불안성을 키웠으며, 상의하달적이고 공개적 논의가 없는 한국의 문화가 루머의 양성을 더 쉽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즉, 안보문제와 정치적 낙후성이 불안을 만들어왔고, 정부와 전통적 미디어가 루머 생성에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할 때 원자력과 같은 위험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에 비해서 더 빠르게 루머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정보들은 인간의 안전욕구와 관련성이 높고,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험 정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개방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de Hoog, Stroebe & de Wit, 2007). 그런데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 정보를 다루는 공식경로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루머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루머의 수용과 확산 모형들은 SIR모형(Susceptible-Infected-Refractory model, Borge-Holthoefter & Moreno, 2011) 기반으로 확산의 네트워크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Jang & Park, 2013; Trpevski, *et. al.*, 2010; Kawachi, *et. al.*, 2008; Xia, *et. al.*, 2015). 최근에 Cha(2015)가 3가지 루머 전파 핵심동기(사실확인, 관계고양, 자기고양, DiFonzo & Bordia, 2007)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Kim & Grunig, 2011)과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을 통합하여 전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Cha(2015)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루머(경성루머)에는 대안적 효능감과 규범적 제약재인

이 전파의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며, 전파의도와 반복 이용이 전파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설정

인터넷에서 루머로서 원자력 위험정보의 수용과 확산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① 정보원에 신뢰와 공신력이 루머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② 이러한 수용은 태도변화를 통해 루머 전파로 이어지는데, ③ 이 과정에 이타적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다. 본 모형에서 핵심은 ① 루머 전파에서 신뢰와 공신력, ② 태도변화, ③ 이타적 동기의 역할이다.

첫째, 루머 전파의 원인(distal factor)으로서 신뢰 문제는 루머 연구에서 핵심적 연구대상이었다. 원자력과 관련된 루머로서 위험정보들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공중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산하기 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식정보의 부재 또는 불신 그리고 비공식 정보의 신뢰에 의해 자연 발생되고 전파되어질 수 있다(DiFonzo & Bordia, 2007; Festinger, 1950). 원자력 위험 정보들은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루머는 정보의 부재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공식정보의 불신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공식 경로 정보들을 불신하면 비공식적 추론인 루머를 통해 상황에 대한 단서를 얻고 통제감을 회복시키고자 한다(Shibutani, 1966). Slovic(1993)은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높고, 낮은 관심은 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루머의 생성은 관리자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적 문화에서 위험 정보는 통제 대상이며, 많은 경우 정부는 위험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여 다루어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다고 지각하기 쉽다. 또한 상의하달적 의사소통방식과 공개적 논의가 어려운 한국 문화(Han, 1998)는 이러한 요소를 더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사람들은 공식정보를 불신하고, 비공신정보를 신뢰할수록 루머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루머의 전달속도와 활동성은 상황의 불확실성과 이슈의 중요성에 비례하고, 공식정보가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비례한다(Allport & Postman, 1945). 공식 의사소통 매체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루머가 보다 많아지고, 빠르게 확산된다(Crampton, *et. al.*, 1998). 사람들은 공식정보를 불신하게 되면 비공식 정보인 루머를 통해 상황통제감을 보상받고 이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Shibutani, 1966).

둘째, 루머가 수용된다고 해서 루머 전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루머 수용이후 일정한 태도변화가 존재하여 한다. 정보의 수용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구전 정보 제공자에 대한 높은 신뢰와 정보 신뢰성은 정보제공자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수신자들이 정보를 지각하도록 만들어 태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Moon, 2001). 구전수용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수용에 따른 태도와 행동 상의 변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까지 연결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Lee & Lee, 2004). Harrison-Walker(2001)는 구전효과를 구전수용과 구전활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전수용을 구전정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의도로 정의하였다. Chatterjee(2001)는 온라인 구전의 수용은 구매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과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루머의 확산에는 설득 과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정보는 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Rosnow, *et. al.*, 1986). 합리적 행위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의 태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Fishbein & Ajzen, 1975). 합리적 행위모형은 정보공유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Wang & Noe, 2010; Bock, *et. al.*, 2005). 정보

공유에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정보공유 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Chow & Chan, 2010). 따라서 태도변화는 루머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정보를 신뢰하면 설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타인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 설득 없이도 루머 전파의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설득이 일어나는 경우에 전파의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루머 수용의 적극적 형태로서 태도 변화는 루머수용과 루머전파를 매개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루머의 전파의도는 전파동기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DiFonzo & Bordia(2007)의 3가지 중요 동기 이외에 이타적 동기가 태도변화에서 전파의도로 가는 경로를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정보공유나 구전의 중요 동기 중 하나가 이타성 또는 이타적 즐거움이다(Kim & Grunig, 2011; Lin & Lee, 2004; Matthew, *et. al.*, 2006; Richins, 1984; Wasko & Faraj, 2005). 원자력과 관련된 이타적 동기는 원자력이 가지는 위험성을 타인들이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바라는 순수한 이타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 및 규제 정책이 한국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를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개발과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Cha & Na(2015)은 인터넷 루머 전파기대 척도를 개발하면서 사회적 이슈화와 사회자본 창출을 중요기대 중 하나로 정의하였는데, 사회적 이슈화와 사회자본 창출은 정책 개발 및 수립과 관련성이 높다.

공식정보의 불신과 비공식 정보의 신뢰는 루머 전파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태도가 변화되어 루머를 전파하려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전파하려 할 수도 있다(Rosnow, *et. al.*, 1986).

이를 반영하여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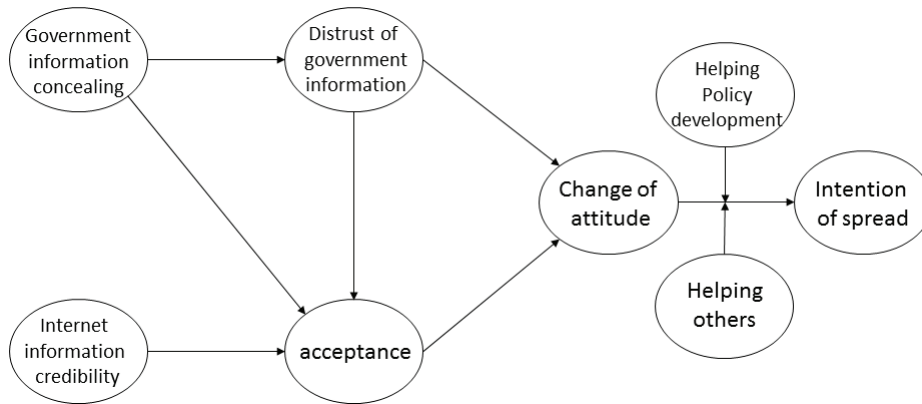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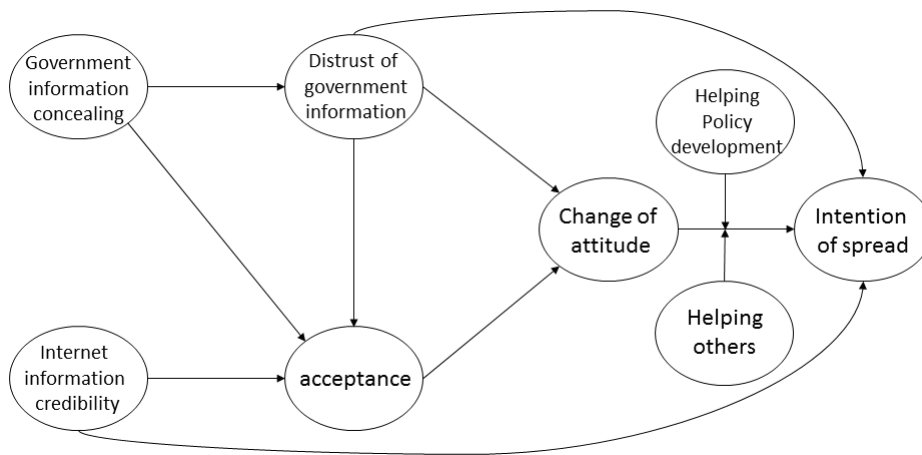


Figure 2. Alternative model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연구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1,572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기준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령별로 20대가 19.2%(302명), 30대가 22.2%(349명), 40대가 25.3%(397명), 50대가 21.8%(342명), 60대 이상이 11.6%(182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51.7%(813명), 여성이 48.3%(759명)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15.0%(236명), 대재/대졸자가 70.5%(1,108명), 대학원재학 이상이 14.5%(228명)이었다. 조사는 2016년 4월 12일 부터 4월 21일까지 약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2. 측정문항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이나 TV뉴스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식경로의 정보와 비공식 경로의 정보를 구분하기 위하여 공식경로의 정보는 정부제공 정보로 한정하였다. 특히 한국민들은 원자력 운영과 안전의 주체로서 정부를 많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비공식 경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입된 정보 중 공식경로 즉, 신문, TV 뉴스, 공식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인터넷 정보로 한정하였다.

정부정보 은폐는 정부가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시키는 것과 관련한 2문항, 정부정보불신은 정부정보 신뢰와 관련한 8문항을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넷 정보의 신뢰는 뉴스를 제외한 SNS,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본 정보의 신뢰성 측정 2문항, 루머수용과 관련된 2문항, 태도변화와 관련된 문항 2문항, 전파의도 2문항, 타인돕기 동기 2문항과 정책도움 동기 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문항내용과 신뢰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Item and reliability

variable	item	reliability
Government information concealing	The government is hiding the nuclear risk information. The government has distorted and reduced the risk of nuclear-related information.	.901
Distrust of government information	It is the reliable information. It is the accurate information. It is the objective information based on facts. It is true that no false information. It is the information that fairness. It is the verified information. It is information that responsibility. It is the expertise information	.955
Internet information reliability	I think that the nuclear risk information is written by people on the internet is the objective information. I think that nuclear risk information is created by people on the internet is a truthful information.	.827
acceptance	I tend to positively agree with the opinion of the people or information that nuclear power is dangerous on the internet. I tend to actively accepted with the opinion of the people or information that nuclear power is dangerous on the internet.	.818
change of attitude	After reading the nuclear risk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y attitude was changed to more negative than the original(ex: positive→negative, negative→ more negative).After reading the nuclear risk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y belief was changed to more negative than the original(ex: positive→negative, negative→ more negative).	.931
intention of spread	I am willing to share with other people negative information about nuclear energy as I know through the internet. i intend to write negative information about nuclear energy that i was knew on the internet bulletin.	.866
Motivation of helping policy development	My participation and interest for nuclear energy will help in nuclear safety and regulatory policy development. My opinion on nuclear energy will help in nuclear safety and regulatory policy development.	.911
Motivation to helping others	If I write about nuclear power on the Internet,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read the article. If I share an article about nuclear power on the Internet,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read the information.	.877

이들 변수들 간의 기본적인 관련성과 기술통계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와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평균하였으며, 평균한 값을 기술통계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result

	1	2	3	4	5	6	7	8
1. Government information concealing	1							
2. Distrust of government information	.428***	1						
3. Internet information reliability	.224***	.092***	1					
4. rumor acceptance	.352***	.247***	.323***	1				
5. attitude change	.300***	.234***	.234***	.640**	1			
6. spread intention	.176***	.164***	.345***	.317***	.275***	1		
7. helping others	.085***	-.062*	.258***	.109***	.093***	.349***	1	
8. helping policy development	.070***	-.066**	.248***	.082***	.061*	.257***	.496**	1
mean	3,31	3,09	2,78	2,92	2,88	2,64	2,83	2,94
sd	0,82	0,74	0,67	0,84	0,97	0,83	0,79	0,78

n=1572, * p< .05 ** p< .01 *** p<.001

IV. 분석결과

1.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183.501(p<.001, df=91)$, CFI=.995, TLI=.992, NFI=.990, RMSEA=.025로 매우 좋았다. 각 잠재변수별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를 반영하는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계수가 모두 0.7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수용과 태도변화 간의 상관관이 0.730으로 약간 높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은 크지

않아,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잠재변수들이 어느 정도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연구모형 검증

인터넷에서 루머로서 원자력 위험정보의 수용과 확산 과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가지 모형을 수립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두 모형 모두 수용가능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안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으며, 간명적합지수인 AIC, ECVI가 더 작았다. 두 모형은 포함관계(nest-nested model)로 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lta\chi^2 =102.101(\Delta df=2, p<.001)$ 로 자유도는 작지만 상대적 설명력이 더 좋은 대안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모형적합도, 간명적합도 그리

Table 3.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measurement variable and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eta	b	SE	t	AVE	CR	correlation
1. Government information concealing	hiding	.912***	1.000			.820	.901	1 & 2=.465***
	reduce	.899***	.983	.031	32,075			1 & 3=-.051
2. Distrust of government information	distrust1	.902***	1.000			.833	.937	1 & 4=.404***
	distrust2	.939***	1.022	.017	59,500			1 & 5=.328***
	distrust3	.897***	1.036	.019	54,298			1 & 6=.194***
3. Internet information reliability	objective	.814***	.965	.059	16,231	.707	.828	1 & 7=.097***
	trustful	.867***	1.000					1 & 8=.078**
4. acceptance	positively agree	.881***	1.229	.039	31,292	.700	.823	2 & 3=.286***
	actively accepted	.790***	1.000					2 & 4=.250***
5. change of attitude	attitude was changed	.934***	1.002	.020	49,385	.871	.931	2 & 5=.177***
	belief was changed	.933***	1.000					2 & 6=-.067
	share with other	.859***	.943	.035	27,191			2 & 7=-.073
6. intention of spread	write negative information	.890***	1.000			.765	.867	2 & 8=-.179
	helping others1	.879***	.996	.032	31,348			3 & 4=.161***
7. helping others	helping others2	.889***	1.000			.781	.877	3 & 5=.114***
	helping policy1	.916***	1.000					3 & 6=.275***
8. helping policy development	helping policy2	.914***	.968	.028	34,143	.837	.911	3 & 7=.197***
	helping policyb2	.914***	.968	.028	34,143			3 & 8=.197***
								4 & 5=.730***
								4 & 6=.371***
								4 & 7=.129***
								4 & 8=.092***
								5 & 6=.304***
								5 & 7=.103***
								5 & 8=.066*
								6 & 7=.402***
								6 & 8=.290***
								7 & 8=.554***

n=1572, * p< .05 ** p< .01 *** p<.001

Table 4. Model fit index of research model & alternative model

모형	χ^2	df	CFI	NFI	TLI	RMSEA (Lo90, Hi90)	SRMR	AIC	ECVI
research model	282,898***	58	.983	.979	.977	.050 (.074, .094)	.064	348,898	.222
alternative model	180,797***	56	.991	.987	.987	.038 (.032, .044)	.048	250,797	.16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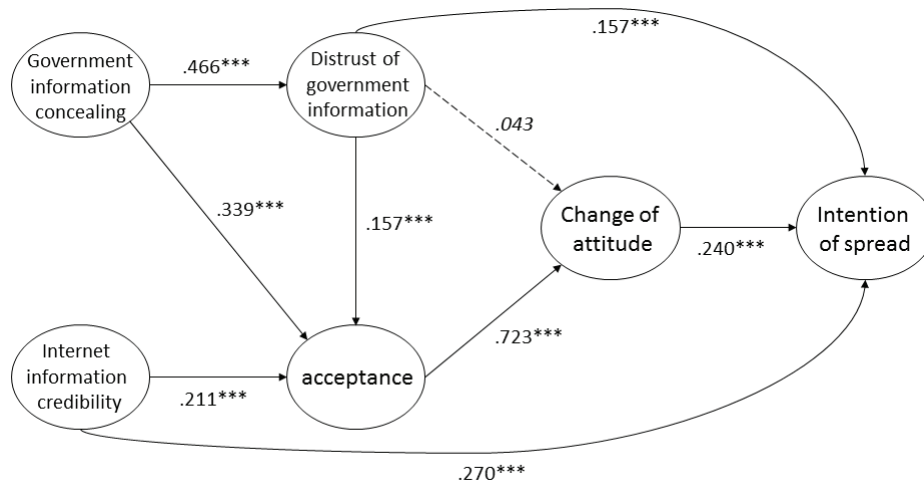


Figure 3. Mediation model(alternative model)

* $p < .05$, ** $p < .01$, *** $p < .001$, standardization coefficient, italic is not significant

고 χ^2 차이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대안모형을 선택하였다. <Figure 3>에 대안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매개모형이 유의미하여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선택된 대안모형은 모형적합도가 매우 우수하고, 정부정보 불신에서 태도변화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간접효과 검증결과, 정부정보은폐성 → 정부정보불신 → 루머태도변화 → 온라인 전파의도의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된 모형에서 전파의도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보 불신, 인터넷정보 신뢰 그리고 태도 변화가 도움동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정부정보 불신이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도움 동기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ignificant test of indirect path

path	b	se	BC 95%CI	
			lower	upper
Government information concealing → Distrust of government information → spread Intention	.075	.017	.043	.108
Government information concealing → Distrust of government information → Change of attitude → spread Intention	.005	.003	.000	.011
Government information concealing → Distrust of government information → rumor acceptance → attitude change → spread intention	.013	.003	.008	.021
Government information concealing → rumor acceptance → attitude change → spread intention	.060	.011	.041	.011
Internet information reliability → rumor acceptance → attitude Change → spread intention	.041	.008	.028	.06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Interaction of helping motivation

	model1			model2		
	B	SE	Beta	B	SE	Beta
constant	2.636***	.018		2.630***	.019	
Government information distrust (A)	.194***	.026	.172	.188***	.026	.167
Internet information reliability (B)	.203***	.026	.180	.197***	.026	.174
attitude change (C)	.160***	.020	.188	.161***	.020	.188
helping policy (D)	.101***	.027	.095	.097***	.028	.092
helping others (E)	.280***	.027	.266	.279	.027	.265
A*D				.078*	.032	.067
A*E				-.036	.035	-.028
B*D				-.012	.032	-.011
B*E				.072*	.034	.059
C*D				-.025	.026	-.026
C*E				.053*	.027	.054
F		97.874			46.315	
R2		.238			.241	
R2 change					.008	

* $p < .05$, ** $p < .01$, *** $p < .001$

($b = .078, p < .05$). 인터넷정보 신뢰($b = .072, p < .05$)와 태도변화($b = .053, p < .05$)가 전파의도에 주는 영향을 타인도움 동기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하였으며, 조절효과를 (Figure 4) ~ (Figure 6)에 제시하였다. 정부정보 불신이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정책도움 동기의 낮은 집단 ($b = .133, p < .001$), 중간 집단($b = .194, p < .001$), 높은 집단($b = .255, p < .001$)의 단순 기울기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터넷 정보 신뢰가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타인도움 동기의 낮은 집단($b = .146, p < .001$), 중간 집단($b = .203, p < .001$), 높은 집단 ($b = .260, p < .001$)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태도 변화가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타인도움 동기의 낮은 집단($b = .118, p < .001$), 중간 집단($b = .160, p < .001$), 높은 집단($b = .202, p < .001$)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정보 불신, 인터넷 정보 신뢰, 태도변화가 전파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정부정보를 불신하고 정책도움 동기가 높을수록 전파의도가 높고,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고, 태도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타인도움 동기가 높을 때 전파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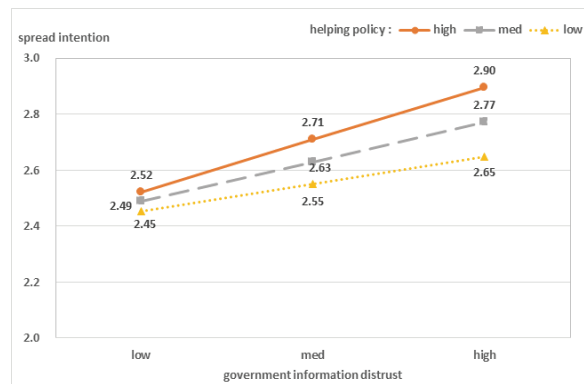


Figure 4. Interaction of government information distrust and motivation of helping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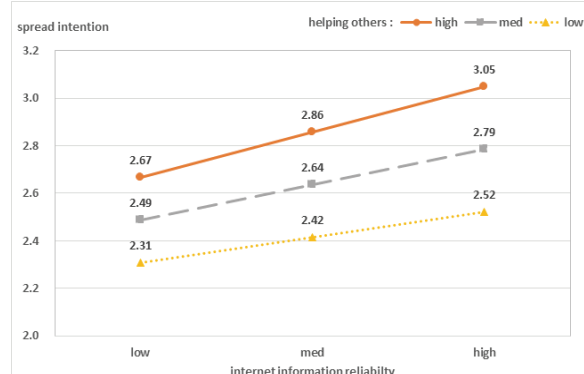


Figure 5. Interaction of internet information reliability and motivation of helping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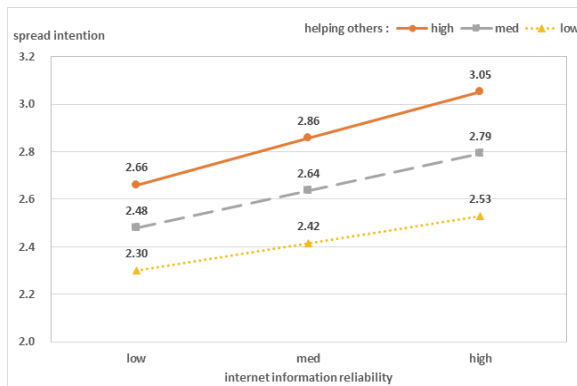


Figure 6. Interaction of attitude change and motivation of helping others

V. 연구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루머로서 원자력 위험정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수용되고, 확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사용자 1,5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 정보로서 정부제공 정보의 불신과 비공식 정보로서 인터넷 정보의 신뢰는 루머 수용에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공식 정보의 부재나 불신이 루머 발생과 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해주며, 공식 정보의 불신과 비공식 정보의 신뢰가 루머 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 정보의 불신과 인터넷 정보의 신뢰는 루머의 수용뿐만 아니라 확산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는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보들은 전달하지 않는다(Rosnow, *et. al.*, 1986). 하지만 공식 정보의 불신은 비공식 정보인 루머의 전파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루머의 수용과 전파에 공식 정보의 불신(신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부가 정보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지각은 정부 정보 불신에 정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루머

수용에도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하향적 의사소통이 많고, 개방적 토론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전통적 미디어들이 루머를 축소하기 보다는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루머가 쉽게 발생한다(Han, 1998). 특히 위험관련 정보는 정부의 중요 통제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가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지각하기 쉽다. 이러한 요소들이 위험 관련된 공식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거나 공식 정보를 불신하도록 하여 루머를 생성하고 사람들이 루머를 더 쉽게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루머 수용이 전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태도 변화가 매개하고 있었다. 태도 변화는 루머를 수용한 결과로써 원래의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태도 변화는 루머수용의 최종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루머에 대한 믿음(belief)을 내포하고 있어, 루머 전파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합리적 행위모형에 따르면 태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 루머 수용에 따른 태도 변화는 변화된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부정보의 불신, 루머수용, 그리고 태도 변화가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움동기가 증가시켰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도움동기의 조절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정보 불신이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수립 도움동기가 증폭시켰으며, 인터넷 정보의 신뢰가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태도 변화가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타인돕기 동기가 증폭시켰다. 정부 정보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아젠다 형성과 같이 간접적으로, 또는 여론 형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 루머의 전파의도는 증가되었다. 이것은 정부활동의 불신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책 수립 도움동기에 의해 전파의도가 높아지지 않지만 타인들을 돕기 위한 동기가 있을 때 루머 전파의도가 높아졌다. 루머를 수용하

는 사람들에게 루머는 루머가 아니라 정보이기 때문에 타인들의 피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기가 ‘정보(루머)’를 전파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루머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루머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다보니 루머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왔다. 루머는 그 성격상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확산을 막는 것보다는 생성과 수용을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루머 생성과 수용 그리고 확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제공 정보의 불신에는 정부가 정보를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지각이 큰 역할을 한다. 2015년도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혼란과 공포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곧바로 루머를 발생시켰으며, 출처가 불명확하고 미확인된 메르스 병원 명단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것은 다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불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병원 명단을 공개하자 빠르게 사라져 갔다. 이것은 위험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루머 발생에 절대적 역할을 하며,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가 루머 소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험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보’의 통제라 아니라 ‘사건’의 통제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위험 관련 사건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지각하고, 정부가 정보를 공개해줄 때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는 루머의 수용과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는 루머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루머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루머 전파자들에게 루머는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양산하는 요인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을 정의해주고, 설명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선한 동기로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 또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왔다.

사람들은 이타적 동기와 이타적 즐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또는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아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루머는 수용자들에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악’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미검증된 ‘정보’이다. 개인에 대한 가십과 달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된 루머들은 개인적인 동기보다는 이타적 동기가 전파의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루머가 발생한 시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에 존재하는 미검증된 원자력 위험정보를 루머로 다루어서 즉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DiFonzo & Bordia(2007)가 이야기한 루머전파의 3가지 동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첫째, 확산 방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 온 선행연구들과 달리 루머의 초기 수용에 초점을 두어 루머가 확산되기 전 어떻게 하면 루머가 덜 수용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모형에 공식 정보와 비공식 정보를 포함시켜 초기 루머 관련 이론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루머 발생의 조건(공식 정보의 불신과 비공식 정보의 신뢰)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둘째, 루머 전파자들의 사회적 또는 이타적 동기를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여 루머 전파 동기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는 루머 전파자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루머의 전파과정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원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원자력안전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No. 1303037).

References

- Allport, G. W. and L. J. Postman. 1947. *The Psychology of Rumor*. NY: Holt.
- Ambrosinia, P. J. 1983. Clinical Assessment of Group and Defensive Aspects of R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33(1): 69-83.
- Bernardi, D., P. H. Cheong, C. Lundry, and S. Ruston. 2012. *Narrative Landmines: Rumors, Islamist Extremism, and the Struggle for Strategic Influence*.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ock, Gee Woo, Robert W. Zmud, Young Gul Kim, and Jae Nam Lee. 2005. Behavioral Intention Formation in Knowledge Sharing: Examining the Roles of Extrinsic Motivators. Social-Psychological Forces and Organizational Climate. *MIS Quarterly*. 29(1): 87-111.
- Brock, T. C. 1968. Implications of Commodity Theory for Value Change. In Greenwald, A., T. C. Brock, and T. M. Ostrom(eds.).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Attitudes*. NY: Academic Press.
- Cha, Yong Jin. 2000. Risk Perception in Korea: A Comparison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isk Research*. 3(4): 321-332.
- Cha, Yong Jin. 2012. The Risk Awareness Models and Nuclear Risk.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1(1): 467-501.
- Cha, Yu Ri and Eun Yeong Na. 2015. The Good, the Bad, or the Ambivalent Rumor? : Validation of the Online Rumor Spreading Expectancy Scale.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2(2): 103-166.
- Cha, Yu Ri. 2015. The Effect of Motivational Causes in the New 'Rumor Has It' Phenomenon : The Integrative Model of STOPS and TPB with the Intention of Spreading Tendential Internet Rumor Messag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2): 157-195.
- Chang, Yong Ho and Lyoung Joo Park. 2013. System Dynamics Approach for Analyzing Internet Rumor Model Using Vensim.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0(3): 79-113.
- Chatterjee, P. 2001. *Online Reviews: Do Consumers Use Them?* In M. C. Gilly and J. Myers-Levy (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129-134).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Cho, Soo Young and Min Hee Chung. 2011. Effects of Online Readers' Comments on Audiences' Belief towards Negative Rumor about a Compan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5): 312-339.
- Chosun Ilbo. 2013. 7. 31.
- Chow, W. S. and L. S. Chan. 2008. Social Network, Social Trust and Shared Goals in 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Information & Management*. 45(7): 458-465.
- Crampton, S. M., J. W. Hodge, and J. M. Mishra. 1998. The Informal Communication Network: Factors Influencing Grapevine Activity. *Public Personnel Management*. 27(4): 569-579.
- Davenport, T. and L. Prusak. 1998. *Working Knowledge: How Organizations Manage What They Know*.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23-143.
- De Hoog, N., W. Stroebe, and J. B. F. De Wit. 2007. The Impact of Vulnerability to and Severity of a Health Risk on Processing and Acceptance of Fear-arousing Communications: A Meta-analysi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1(3): 258-285.
- DiFonzo, N. and P. Bordia. 2000. How Top PR Professionals Handle Hearsay: Corporate Rumours, Their Effects and Strategies to Manage Them. *Public Relations Review*. 26(2): 173-190.
- DiFonzo, N. and P. Bordia. 2007. *Rumor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stenger, L. 1950. Informal Social Communication. *Psychological Review*. 57(5): 271-282.
- Fishbein, M.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romkin, H. L. 1972. Feelings of Interpersonal Undistinctiveness: An Unpleasant Affective State. *Journal of Excre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6: 178-185.
- Garrett, R. K. 2011. Troubling Consequences of Online Political Rumor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7(2): 255-274.
- Guggenheim, L., N. Kwak, and S. W. Campbell. 2011.

- Nontraditional News Nega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3(3): 287-314.
- Han, Jung Ho. 199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panies Rumors: Focus on the Inquiry Disclose Data Analysi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 113-137.
- Harrison-Walker, L. J. 2001. The Measurement of Word-of-Mouth Communication and an Investigation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Commitment as Potential Antecedents. *Journal of Service Research*. 4: 60-75.
- Harsin, J. 2006. The Rumour Bomb: Theorising the Convergence of New and Old Trends in Mediated US Politics. *Southern Review: Communication, Politics & Culture*. 39(1): 84-110.
- Huber, G. P. 1991. Organizational Learning: The Contributing Processes and Literatures. *Organization Science*. 2(1): 88-115.
- Kankanhalli, A., B. C. Y. Tan, and K. K. Wei, 2005. Contributing Knowledge to Electronic Knowledge Repositori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Mis Quarterly*. 29(1): 113-143.
- Kawachi, K., M. Seki, H. Yoshida, Y. Otake, K. Warshina, and H. Ueda. 2008. A Rumor Transmission Model with Various Contact Interactions.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53(1): 55-60.
- Kim, Bok Soo. 1986. A Study on Rumors(Unofficial Media). *Korean Studies Quarterly*. 9(1): 175-190.
- Kim, Hyun Joo. 1997. The Formation and Spreading of Company Rumors: Theoretical Consideratio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5: 1-13.
- Kim, Jeong Nam and J. E. Grunig. 2011.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ve A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1(1): 120-149.
- Kim, Tae Jin, Jae Eun Lee, and Yoon Soo Jung. 2007. A Study on the Social Risk Comparison for Various Power System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55(4): 41-58.
- Knapp, R. H. 1944. A Psychology of Rumor. *Public Opinion Quarterly*. 8(1): 22-37.
- Kollock, P. 1999. The Economies of Online Cooperation: Gifts, Public Goods in Cyberspace. In Smith, M. A. and P. Kollock (eds.). *Communities in Cyberspace*. London: Routledge. 220-239.
- Krebs, D. L.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6): 1134-1146.
- Lee, Eun Young and Thae Min Lee. 2005. The Effects of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n Word of Mouth Performance in Online Environment: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 Knowledge.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16(2): 7-33.
- Lee, Hyo Seong. 1977. Collective Behavior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14: 111-130.
- Lynn, M. 1991. Scarcity Effects on Desirability: A Quantitative Review of the Commodity Theory Literature. *Psychology and Marketing*. 8(1): 43-57.
- Matthew, K. O. Lee, Christy M. K. Cheung, Kai H. Lim, and Choon Ling Sia. 2006. Understanding Customer Knowledge Sharing in Web-Based Discussion Boards: An Exploratory Study. *Internet Research*. 16(3): 289-303.
- Park, Cheon Hee and Seo Yong Kim. 2015. The Role of Knowledge i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 Focu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3(3): 117-150.
- Park, Bang Ju. 2012.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Radiation: With One Year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37(1): 1-9.
- Richins, M. L. 1984. Word of Mouth Communication as Negative Information,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In Thomas C. Kinnear (ed.). Ann Arbor, MI: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697-702.
- Rosnow, R. L. 1974. Communications as Cultural Sci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24 (3): 26-38.
- Rosnow, R. L. 1980. Psychology of Rumor Reconsidered. *Psychological Bulletin*. 87(3): 578-591.
- Rosnow, R. L. 1991. Inside Rumor: A Personal Journey. *American Psychologist*. 46(5): 484-496.
- Rosnow, R. L. and M. Georgoudi. 1985. Killed by Idle Gossip: The Psychology of Small Talk. In B. Rubin (ed.). *When Information Counts: Grading the Media*. 59-73. Lexington, MA: Lexington Books/D. C. Heath.
- Rosnow, R. L. and A. J. Kimmel. 2000. *Rumor in Encyclopedia of Psychology*. In A. E. Kazdin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nd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122-123.

Rosnow, R. L., J. H. Yost, and J. L. Esposito. 1986. Belief in Rumor and Likelihood of Rumor Transmission. *Language & Communication*. 6(3): 189-194.

Rowan, R. 1979. Where Did That Rumor Come from. *Fortune*. 13: 130-137.

Shibutani, T. 1966. *Improvised News*. IN: Bobbs-Merrill.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4799): 280-285.

Sunstein, C. R. 2009. *On Rumors: How Falsehoods Spread, Why Believe Them, What Can Be Done*. NY: FSG.

Trpevski, D., W. K. S. Tang, and L. Kocarev. 2010. Model for Rumor Spreading over Networks. *Physical Review*. E81 (056102).

Wang, Jae Sun and Seo Yong Kim. 2013.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Nuclear Acceptability and Recognition Structure Change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2): 395-424.

Wang, S. and R. A. Noe. 2010. Knowledge Sharing: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0(2): 115-131.

Wasko, M. M. and S. Faraj. 2005. Why Should I Share? Examining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Contribution in Electronic Networks of Practice. *MIS Quarterly*. 29(1): 35-37.

Xia, L., G. Jiang, Y. Song, and B. Song. 2015. Modeling and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Network Rumors and Authoritative Information. *Entropy*. 2015(17): 471-482.

Zimmerman, R. 1985. The Relationship of Emergency Management to Governmental Polices on Man-Made Technological Disast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29-39.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김복수. 1986. 루머(非公式的 大衆媒體)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 연구*. 9(1): 175-190.

김태진, 이재은, 정윤수. 2007. 원자력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분석: 타 발전원들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토*

연구. 55: 41-58.

김현주. 1997. 기업루머의 생산과 확산: 이론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5: 1-13.

박방주. 2012. 방사선의 대국민 인식도 분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 계기. *방사선방어학회지*. 37(1): 1-9.

박천희, 김서용. 2015. 원자력 수용성 결정에서 지식의 효과와 기능: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3): 117-150.

왕재선, 김서용. 20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395-424.

이은영, 이태민. 2005. 온라인 환경에서 의 정보특성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 제품지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6(2): 7-33.

이효성. 1977. 집합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신문연구소학보*. 14: 111-130.

조선일보. 2013. 07. 31. 황당한 日방사능 怪談 나돌아... 정부는 "대부분 거짓".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31/2013073100205.html.

조수영, 정민희. 2011. 기업의 부정적 루머에 대한 사실 인식에 미치는 댓글의 영향력. *한국 언론학보*. 55(5): 312-339.

장용호, 박령주. 2013. Vensim을 이용한 인터넷 루머의 동태적 확산과정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30(3): 79-113.

차용진. 2012. 위험인식모형과 원자력위험. *한국정책학회보*. 21(1): 467-501.

차유리, 나은영. 2015. 좋은루머, 나쁜 루머, 양가적 루머?: 인터넷 루머 전파기대 척도의 타당화. *언론정보연구*. 52(2): 103-166.

차유리. 2015. 신 '카더라통신'의 동기적 요인효과: 경향적 인터넷 루머 전파의도에 대한 문제해결상황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 *한국언론학보*. 59(2): 157-195.

한정호. 1998. 한국형 기업루머의 특성연구: 조희공시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 113-137.

Received: Jul. 23, 2016 / Revised: Aug. 17, 2016 / Accepted: Sep. 28, 2016

인터넷 루머의 수용과 확산 모형 검증

– 원자력 위험정보에서 도움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루머로서 원자력 위험정보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에서 수용과 확산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는 1) 정부제공 정보의 불신과 인터넷 정보의 신뢰가 루머 수용에 영향을 주고, 2) 루머수용은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고, 3) 태도변화는 전파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4) 전파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도움동기(정책개발 도움, 타인 돕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분석결과, 정부 정보 불신과 인터넷 정보 신뢰는 인터넷 루머 수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루머 수용 역시 태도변화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정부정보의 불신과 인터넷 정보의 신뢰의 증가 그리고 태도변화는 전파의도를 증가시켰다. 정책 개발 도움동기는 정부정보 불신이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고, 인터넷 정보 신뢰와 태도변화가 전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돕기 동기에 의해 조절되었다. 즉, 정부정보를 불신하는 사람들의 루머 전파의도는 정부 정책 개발동기에 의해 증가되고,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고, 태도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루머 전파의도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증가되었다.

주제어 : 원자력 수용성, 인터넷 루머, 루머의 확산과 수용

Profiles **Yeon Jae Ryu** : He received his M.A. and Ph.D. from Ajou University. He is a research professor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t Ajou University. His interests include risk communication and persuasion(psy1973@gmail.com).
Seo Yong Kim : He received Ph.D. from Korea University.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Ajou University(seoyongkim@ajou.ac.kr).